

주간 테러동향

'20. 12. 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佛, 경찰관 신상 보호법안 하원 통과

- 11.24 하원은 경찰관에게 '심리적 혹은 신체적 해를 가할 목적'으로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나 동영상을 SNS상 게시를 금지하는 법안 가결(징역 1년 또는 약 6천만원의 벌금 부과)
* 同 법안 가결 후 佛 전역에서 '언론자유 침해'라며 '포괄적 보안법' 제정 규탄시위 발생, 11.30 여당과 야당은 법안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발표

○ 英, 통합 형식의 '대테러 작전 센터' 설립 추진

- 11.25 「수낙」 英 재무장관은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·정보·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형식의 '대테러 작전 센터(CTOC)' 설립을 추진중이며, 예산 4억 파운드(약 6,000억원)를 배정했다고 발표
* '17년 런던 연쇄 테러 이후 대테러능력 제고를 위해 설립 추진

아·태평양

○ 인도·몰디브·스리랑카, 테러정보 공유 강화 합의

- 11.25 인도·몰디브·스리랑카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·극단주의·마약밀매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, 연 2회 부차관급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협력할 것을 합의

○ 호주 軍, 아프간 민간인 불법 살인으로 자국내 테러 위협 고조

- 11.30 호주 현지언론은 '05~'16년 아프간 전쟁에 파병됐던 軍이 포로와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살했다는 軍 감찰실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, 전세계 지하디 무장세력의 호주인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

○ 과기·국토부, '민간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' 발표

- 12.1 과기정통부·국토부는 드론 보급확대로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, 드론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보안위협(17종)·상황별 시나리오(6종)와 대응 방안을 담은 「민간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」를 발표

* 美는 '19년 드론 탈취에 의한 테러위협 등을 막기 위한 '드론 보안법' 발의

미 주

○ 美, '뭄바이 테러' 배후범 정보제공 보상금 5백만 달러 책정

- 11.26 美 국무부는 '뭄바이 테러'('08.11) 설계자로 지목된 '라쉬카르-에-타이바'(LeT)의 고위 조직원 「사지드 미르*」의 검거·유죄증거 등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(약 55억원)를 지급한다고 발표

* 뭄바이 테러의 계획·준비·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'11.4월 체포영장 발부

중 동

○ 싱가포르, 프랑스·오스트리아 테러 옹호 외국인 노동자 추방

- 11.24 내무부는 “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, 소셜 미디어를 통해 佛 역사교사 참수 테러 등에 폭력을 부추기거나 불안을 조장한 방글라데시인 15명 등 외국인 16명을 추방했다”고 발표

*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인 1명은 시리아·팔레스타인 무장 투쟁에 가담 기도

○ 이란, 핵과학자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 지목 및 보복 경고

- 11.29 「하산 로하니」 이란 대통령이 핵과학자 암살*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가운데, 최고 지도자 「하메네이」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“책임 있는 자들에게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”며 보복 경고

* 11.27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이끌던 「모센 파크리자데」가 테헤란 인근에서 피살

○ 이스라엘, 해외 체류 自國民 대상 테러위협 경고

- 11.29 정보당국은 “‘이란 핵과학자 사망 사건’ 관련 세계 각국의 자국민 및 공관·유대인 공동체 등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이 높다”며 주의 당부

체첸 반군, 러시아 고속열차 폭탄테러

- '09.11.27 러시아 노브고로드州에서 고속열차를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, 객차 2량이 전복·파손되면서 27명 사망·90여명 부상
 -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TNT 7kg의 폭발력을 갖춘 사제 폭발물을 제작해 철로 아래에 설치했다고 발표
- 체첸 반군은 同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“카프카스 지역에서 이슬람교도 말살 정책을 멈추지 않는 한 파괴행위는 계속될 것”이라고 경고
- 러시아 당국은 “어떤 테러 위협에도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 하겠다”며 주요 철도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철도 안전 대책 마련
 - 이후, 연방보안국(FSB)은 “테러에 가담한 26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 했고, 다른 15명을 체포했다”고 발표

< 자이쉬 에 모하메드(JeM) >

- (목 표) 잠무카슈미르의 파키스탄 귀속 및 아프간內 외국군 축출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1.10), 미국('01.12), 영국('01.3)
- (조직규모) 약 500명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, 탈레반,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 등
- (활동지역) 잠무카슈미르, 아프간
- (활동수법) 인도軍 기지 등 하드 타깃 공격을 선호, 국경 또는 민간인(시아파·기독교도) 대상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테러전술 선호
- (주요테러) ① '19.2 잠무카슈미르州에서 경찰버스 자폭테러(사망 45, 부상 35)
 ② '18.10 잠무카슈미르州에서 민간인 대상 무장공격(사망 7, 부상 40)